

두 브라질 성전이 헌납됨



사진 촬영: 클레비스 캄무스

브라질 북부에 위치한, 새로 건립된 레시페 성전은 성전 일반 공개 기간에 7만 8천 명의 방문객을 맞았다. 레시페 성전은 1978년 상파울루 성전이 헌납된 이후 브라질에서 헌납된 첫번째 성전이다.

2000년 12월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대관장 단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도움을 받아 브라질 레시페 성전과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성전을 헌납했다. 이 성전들은 놀라운 성전 건립의 해였던 2000년에 마지막으로 헌납된 성전들이다.

이 두 성전의 헌납은 1939년부터 1942년까지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던 파우스트 부대관장에게 특히 뜻깊은 행사였다. 당시에 이 남미 국가에는 800여 명의 회원들이 있었다. 오늘날 브라질의 교회 회원은 80만 명으로 불어났다.

이 여정 동안 힝클리 대관장과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또한 푸에르토 리코와 파나마에서 회중들에게 말씀했다.

브라질 레시페 성전

힝클리 대관장과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12월 15일 성전 헌납식에서 각기 두 차례의 모임을 사회했다. 헌

납 기도에서 그들은 이렇게 간구했다. “당신의 사업이 놀랍고도 현저하게 성장한 이 위대한 국가 브라질에 은혜의 미소를 비취 주소서. 이 나라의 경제가 번성케 하옵소서. 온 나라에 평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당신의 사자인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환영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노고가 크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들 대관장단의 두 분과 함께 브라질 북지역 회장단인 칠십인 정원회의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가 로버트 에스 우드 장로와 다윈 비 크리스틴슨 장로와 함께했다.

7,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1978년 상파울루 성전이 헌납된 이후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완공된 브라질 레시페 성전 헌납식에 참석했다. 레시페 성전은 비용 때문에 상파울루까지 72시간씩 걸리는 여행을 할 수 없었던 많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78,386명의 사람들이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열린 성전 일반 공개 기간 중에 주변 정원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포르투 알레그레 성전 기공식에 참석하고 있다.

과 과일 나무들과 야자수 등과 어우러진 너무나도 아름다운 새로운 성전에 다녀갔다. 이들 방문객 중 수천 명은 활동이 저조한 회원이거나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지역 공보 책임자인 클레토 올리베이라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교회에 관해 더 많

이 알아 보고자 하는 비회원 가족들과 성전 일반 공개 이후 다시 활동적인 회원이 되고 싶어하는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의 수를 볼 때 이곳의 교회가 더욱 강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성전

12월 17일에 헌납된 포르투 알레그레 성전은 현재 운영 중인 교회의 102번째 성전이 됨과 동시에 2000년도에 마지막으로 헌납된 성전이 되었다.

“이 성전 관할 구역 내의 끊임없이 늘어나는 회원들이 당신의 집에서 봉사할 자격을 갖추고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축복하십시오. ... 우리는 이 위대한 나라 브라질에 당신의 축복이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히클리 대관장이 헌납 기도에서 간구했다.

이 헌납 모임에는 히클리 대관장과 파우

스트 부대관장을 위시하여 브라질 남지역 회장단의 일원인 칠십인 정원회 캔트 줄리 장로, 애토스 엠 애모림 장로, 아레마 다미아니 장로가 참석했다.

7,500여 명의 말일성도들이 도시를 내려보는 경사진 언덕에 위치한 아름다운 성전 헌납식에 참석했다. 12월 2일부터 9일까지 가진 성전 일반 공개 기간에 2만 5천 명의 방문객들이 방문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헌납식에서 자신이 포르투 알레그레에 선교사로 왔을 때 교회 회원이라곤 6명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 회원 가운데 1938년 12월 17일에 침례를 받은 어린 올가 빙 비엘이 있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침례 받은 날부터 정확히 62년 만에 포르투 알레그레 성전 헌납식에 참석했다. 비엘 자매는 자신이 사는 도시에 성전이 세워진 것에 기쁨과 놀라움을 표했다.

푸에르토 리코 회원과의 모임



히클리 대관장과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푸에르토 리코에서 회원들을 만났다.

히클리 대관장은 12월 13일 브라질로 가는 길에 산후안에 들렀는데 이것은 푸에르토 리코에 처음으로 방문한 것이다. 약 3,300여 명의 회원들이, 그 중 일부는 멀리 미국 버진 아일랜드에서 여행해 온 가운데, 히클리 대관장과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말씀을 듣고자 경기장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북미 남동 지역 회장단의 회장과 제1보좌인 리처드 디 올레드 장로, 고든 티 와츠 장로, 산후안 선교부장, 딘 엠 데이비스 장로 등이 또한 말씀했다.

히클리 대관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회복에 대한 간증을 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 위대한 대업과 왕국의 진리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

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 모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말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또한 회원들에게 성전 의식에 참석

하기에 합당하게 살도록 권고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집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성전 의식 없이는 완결되지 않습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더 많은 전임 선

교사들이 나오도록 어머니들에게 그들의 아들이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파우스트 가의 아들 다섯이 모두 선교사로 봉사하고 성전에서 결혼하게 된 것은 [제 모친의] 신앙이 어린 가슴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파나마 회원과의 모임

12월 18일에 약 4,500여 명의 회원들이 교회 지도자들과 대면하고 그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 파나마 시티의 한 대회장으로 모였다. 이 모임에는 핑클리 대관장과 파우스트 부대관장을 위시하여 중미 지역 회장인 린 지 로빈스 장로와 파나마 시티 선교부장인 두앤 비 윌리엄 장로가 함께 했다.

핑클리 대관장은 말씀 중에 십일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회원들이 십일조를 내어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 보인다면, “이 곳에 성전을 지을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거듭 태어나 침례 성약을 맺는 것에 대해 말씀했다. 그는 구세주에 대한 간증으로 말씀을 마쳤다.



사진 제공: 대관장인 사부님

파나마 시티에서 핑클리 대관장이 말씀을 마친 후 손을 흔들자 4,500여 명의 회원들이 기쁨으로 환호했다. “우리는 이 곳에 성전을 지을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2000년도 핑클리 대관장의 여행

2000년은 고든 비 핑클리 대관장에게 획기적인 한 해였다. 다채로운 한 해 동안 그는 90세 생일을 맞이하고, 21,000석을 갖춘 교회의 새로운 컨퍼런스 센터를 헌납했고, 미국에서 그의 저서인 “Standing for Something”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고, 15개국이 넘는 외국을 여행했고, 교회 회원이 천백만 명이 되는 것을 지켜보았

고, 100번째 성전을 포함한 21개의 성전을 헌납했다. 다음은 2000년도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의 일부이다.

1. 미네소타 주, 세인트 폴, 성전 헌납, 1월 9일
2. 하와이, 라이에, 지구 대회, 1월 22~23일
3. 하와이, 코나, 성전 헌납, 1월 23일
4. 키리바시, 타라와, 공항에서의 환영식, 1월 26일
5. 오스트레일리아, 케언스, 회원과의 모임, 1월 26일
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회원과의 모임, 1월 28일
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서의 환영식, 1월 30일
8. 싱가포르, 회원과의 모임, 1월 30일
9. 괌, 회원과의 모임, 1월 31일
10. 멕시코, 시우다드후아레스, 성전 헌납, 2월 26일



26일

- 11. 멕시코, 에르모시요, 성전 헌납, 2월 27일
- 12. 뉴멕시코, 앨버커키, 성전 헌납, 3월 5일
- 13. 워싱턴 디 시, 기자 회견 모임, 3월 8일
- 14. 뉴욕 주, 팔마이라, 성전 헌납, 4월 6일
- 15.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성전 헌납, 4월 9일
- 16. 코스타리카, 산호세, 회원과의 모임, 4월

29일

- 17. 볼리비아, 코차밤바, 성전 헌납, 4월 30일
- 18. 퀘벡 주, 몬트리올, 성전 헌납, 6월 4일
- 19. 일본, 후쿠오카, 성전 헌납, 6월 11일
- 20. 태국, 방콕, 회원과의 모임, 6월 13일
- 21. 오스트레일리아, 다윈, 공항 환영식, 6월

14일

- 22.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 성전 헌납,

6월 15일

- 23.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성전 헌납, 6월 16일
- 24. 누벨칼레도니, 누메아, 회원과의 모임, 6월 17일

- 25. 미국령 사모아, 파고 파고, 회원과의 모임, 6월 17일

- 26. 피지, 수바, 성전 헌납, 6월 18일

- 27.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 성전 헌납, 6월 16일

- 28.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성전 헌납, 8월 20일

- 29. 텍사스, 휴스턴, 성전 헌납, 8월 26일

- 30. 알라배마, 버밍햄, 성전 헌납, 9월 3일

- 31.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 도밍고, 성전 헌납,

9월 17일

- 32. 매사추세츠, 보스턴, 성전 헌납, 10월 1일
- 33. 일리노이, 나부, 성전 기공식, 11월 5일
- 34. 푸에르토 리코, 산후안, 회원과의 모임, 12월 13일

- 35. 브라질, 레시페, 성전 헌납, 12월 15일

- 36. 브라질, 푸르투 알레그레, 성전 헌납, 12월 17일

- 37. 파나마, 파나마 시티, 회원과의 모임, 12월 18일

▪ 유태와 아이다호에서의 이벤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2000년 12월 30일 처치 뉴스에서 인용한 기사

힝클리 대관장: 가장 존경 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됨

2000년 12월 29일에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미국인들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명

되었다.

연례 전국 조사에서 갤럽 사는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현재 세계 어느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한 사

람을 지명하도록 했다. 응답자의 1%가 힝클리 대관장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가장 존경받는 16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2000년에 달성한 또 다른 100번째의 획기적 업적

바바라 진 존스



사진: 레스 윌러

에티오피아에서 암하리어로 된 몰몬경을 처음 받은 지 몇 시간 만에 아디스 아바바 지부의 게메추 와리오 고자 지부장은 가족들과 함께 그 책을 나눴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2000년도에 달성한 100의 기념비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말일성도들은 성전을 생각한다. 2000년 10월에 교회의 100번째 성전 헌납은 기쁨 가운데 받아들여졌으며 언론의 긍정적인 보도가 있었다.

2000년에는 대다수의 회원들이 예기치 못했을 또 다른 100번째의 역사적 이정표가 조용하게 달성되었다. 2000년 12월 29일에 동아르메니아어, 암하리어(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에서 사용됨),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크호사어(남아프리카에서 사용됨)로 몰몬경 번역이 완결되어 출간됨으로써 번역이 완결된 언어가 100개의 언어에 이르렀다.

비록 이 사건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지만, 몰몬경을 수많은 언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100개의 성전과 마찬가지로 전세계 사람들에게 축복이다.

세계적인 축복

조쉬 화이트 장로는 2000년 초에 자신이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에 몰몬경 번역본이 도착하던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곳의 훌륭한 회원들이 자신

의 모국어로 된 이 훌륭한 책을 받고 흘렸던 기쁨의 눈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저는 그처럼 고귀한 가치를 지닌 이 책을 앞으로는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겠습니다."

개종한 지 7년 된 에스토니아 탈린 지방부, 타투 지부의 마리 티마코프는 자신의 언어로 그 책을 읽은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다. "에스토니아어로 몰몬경을 읽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 왔어요. 자신의 언어로 페이지마다 신성한 권고의 말씀으로 가득한 몰몬경을 손에 쥘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언어로 된 몰몬경을 받는 기쁨은 한결 같았다. "오늘 저는 암하리어로 몰몬경을 받는 최초의 에티오피아 회원이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기쁩니다." 하고 2001년 1월에 아디스아바바 지부장인 게메추 와리오 고자 형제가 말했다. "저와 함께 몰몬경을 번역했던 회원들에게 먼저 몰몬경을 전달하자,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쁨에 펄쩍 펄쩍 그 자리에서 뛰었습니다. 집으로 몰몬경을 가지고 돌아오자 가족들이 보고 싶어 못견디

겠다는 듯이 책 주위로 모여들었고 우리는 돌아가며 암하리어로 몰몬경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회원들을 강화하고 선교 사업을 도움

최근에 생성된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스테이크-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에 세워진 첫번째 스테이크의 스테이크장인 도미니크 안드리아마난토아 형제는 2000년 2월에 말라가시어 몰몬경이 출간된 이후로 지역 회원들 사이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에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잘 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몰몬경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안드리아마난토아 스테이크장이 말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이 몰몬경을 읽고 그 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지도자들이 더욱 강해지고 더 많은 회원들이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진: 콜린 비 구리저

스와힐리어로 번역된 책을 받은 후에 탄자니아 구도자인 힐다 찰스는 "제가 몰몬경을 읽을 수 있다니 믿기지가 않아요!"라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교회 회원들이 동티모르인들을 도움

티마코프 자매는 에스토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책을 펼치고 읽거나 말씀 중에 구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물론 경이 크게 읽혀질 때 그 가르침의 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는 '죄송합니다, 저는 에스토니아어밖에 이해하지 못해요.' 라고 말하고 말았을 사람들에게 물론경을 건네줄 수 있습니다. 물론경은 참으로 소중한 여길 축복입니다."

지난 가을에 스와힐리어로 번역된 물론경이 출간된 탄자니아에서는 찬combe 지부의 윌리엄 기데메 지부장이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제 가족들에게 물론경을 온전히 이해하는 가운데 읽어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경을 수많은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이전에는 구도자에게 물론경을 줄 수 없었던 지역에서 선교 사업의 성공을 약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가 물론경을 읽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해요." 하고 찬combe 지부에 참석해 오던 구도자, 힐다 찰스가 말했다.

에티오피아에서 봉사하는 한 선교사는 고

자 지부장에게 "우리 앞으로 무척 바빠질 겁니다!" 라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회원들이 동티모르인들을 도움

오스트레일리아의 교회 회원들이 단합하여 동티모르의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구호품 패키지를 제공했다. 2000년 12월에 농기구, 음식, 의복 등 85,000kg 상당의 물품이 시드니에서 동티모르로 보내졌다.

오스트레일리아 교회 역원들이 국제 평화 유지군을 통해 동티모르에 오는 모든 물자가 배분되도록 감독하는 동티모르 국가 평의회 의장인 자나나 구스마오에게 그 원조 물자를 전달했다.

오스트레일리아 회원들은 10,000kg 상당의 어린이 새 옷 및 헌 옷을 패키지의 일부로 기부했고, 농기구와 음식은 오스트레일리아, 뉴 시우스 웨일즈의 그리피스에 있는 교회 복지 농장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구매했다.

구스마오 지도자는 농기구에 대해 특별

히 감사하며 "이것은 우리 국민에게 주는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라고 말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그들 스스로 곡물을 키우고 자급 자족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주는 것은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교회는 올해 초에 동티모르 피난민들에게 위생 용품, 음식, 의복 등을 포함한 다른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 적이 있다.

말일성도 이민자들의 항해를 재현하는 바다 항해 2001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수천 명의 19세기 말일성도들을 기념하기 위한 2개월간의 기념 항해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2001년 8월 7일에 1850년대의 그것을 재현한 범선 10척이 덴마크 에스버지그를 출항하여, 덴마크 코펜하겐, 스웨덴 그테보르그, 노르웨이 오슬로, 독일 함부르그, 영국 홀, 리버풀, 포츠머스, 캐나다 제도, 바하마 등에 기항한 후 10월 4일 뉴욕 시에서 항해를 마칠 예정이다.

배들이 기항할 몇몇 항구에서 축제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항구에서의 축제 행사로 범선 투어, 불꽃 놀이, 말일성도 이민에 대한 해상 전시회, 컴퓨터 조상 연구 시범, 역사 워크샵, 콘서트 등이 있을 예정이다. 콘서트를 위해 "바다 위의 성도들"이라는 음악 작품들이 말일성도 작곡가들에 의해 쓰여지고 있다. 최종 축하 행사는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양 항해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은 www.seatrek2001.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교회 역원들이 오스트레일리아 회원들이 보내 온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내리는 것을 돕고 있다.

아론 신권에 대한 조명

오늘날의 문제들을 극복할

김리 감독단과 본부 청남 회장단

2000년 11월 12일에 열린 노변의 모임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교회의 청소년들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씀했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의 문제들은 주로 행동을 결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 세대들이 겪었던 문제들보다 다루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이 일단 합당하게 행동하기로 결정하면 문제들은 쉽게 해결된다.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41쪽 참조)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신성한 은사인 자유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면 청소년들은 성공적으로 오늘날의 세상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힝클리 대관장은 청소년들이 문제들을

극복하도록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로 시작하는 여섯 가지 지침을 제시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한다. 부모와 친구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한다.

우리는 지식을 쌓아야 한다. 어떤 분야를 선택하던 청소년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희생을 해야 한다.

우리는 깨끗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어 일컫는 외설 작품들과, 마약, 파괴적인 오락, 문신, 신체에 구멍을 뚫는 일(귀걸이 한 쌍을 하기 위해 여성들이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을 제외하고), 때 이른 데이트, 모든 성적 범죄들을 피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친구들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진실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교회에 충실해야 하며 자기들의 확신에 대해 진실해야 한다.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겸손한 청소년들은 주님께서 인도할 것이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은 선한 양심을 지니고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게 생활해야 한다.

감독, 청남 회장단, 기타 아론 신권 지도자들은 정원회 모임, 일요일 저녁 토론, 기타 유사한 모임에서 청남들과 힝클리 대관장의 권고를 읽고 토론해야 하며, 이 권고를 그들 자신이 생활에 적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청소년들이 이 지침대로 생활함으로써 오는 기쁨을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힝클리 대관장의 권고에 따라 생활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 준다.

멜기세덱 신권에 대한 조명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격려할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2000년 10월 7일 연차 대회의 신권 모임에서 아버지들에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의 문제만큼 아버지의 행복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61~68쪽 참조) 힝클리 대관장은 청소년들은 그들의 주위에 만연한 악에 대항하는 데 있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방법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 좋은 친구들을 사귀도록 한다. 말일성

도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친구들을 선택해야 한다.

-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청소년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노력할 때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도 그들의 향상된 능력과 기술로 인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 자기 존중을 가르친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여성들이 귀걸이 한 쌍을 하기 위해 귀에 뚫는 작은 구멍을 제외하고는 몸에 구멍을 뚫는 일이나 문신을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 마약을 멀리하라고 가르친다.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

들은 자제심을 잃게 되고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하게 될 것이다.

- 정직의 미덕에 대해 가르친다. 정직한 사람은 깨끗한 양심과 흠이 없는 평판을 누린다.

- 유덕을 가르친다. 성적 충동은 불굴의



사진 촬영: 제트-클러크

자기 수련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 주님의 집에서 결혼하기를 고대하도록 가르친다. 청소년들은 아무런 오점이나 죄

없이 결혼의 단 앞에 나와야 한다. 남편들은 이혼을 조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나 태도를 피해야 한다.

• 자녀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친다. 우리가 개인적인 도움과 인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기적이다.

2001년 5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 보충 제언



다음은 리아호나, 2001년 5월호에 실린 함께 나누는 시간과 더불어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이다. 이 제언과 관련된 공과, 유의 사항, 활동을 보려면 이번 호 어린이란의 2쪽과 3쪽에 있는 “순종은 축복을 가져온다”를 참조한다.

1. 지도 세 개를 그린다. 첫번째 지도에는 교회 집회소를 포함한 몇 개의 건물을 그려야 한다. 도로는 중착지가 없이 순환하는 원 모양이어야 한다. 두 번째 지도에는 주위는 같지만 길을 올바르게 그린다. 세 번째 지도에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이어주는 끈은 길을 그린다. 어린이들에게 첫번째 지도를 보여 준다. 그들에게 이 지도에 있는 길을 따라가면 교회로 갈 수 있는지 질문한다. 두 번째 지도를 보여 준다. 그들에게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길들과 도로들을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본다. 이 지도를 사용해 교회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질문한다. 이제 세 번째 지도를 보여 준다.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 예언자가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들을 지도 위에 있는 길을 따라 그리거나 쓰게 한다.(예를 들면, 침례 받기, 성신의 은사 받기, 예언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경전 읽기, 기도하기, 친절하기, 계명에 순종하기, 성전에서 결혼하기 등) 예언자를 따르고 그가 우리에게 하라고 명한 일을 함으로써, 우

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안전하게 인도 될 것이다.

2.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이 몇 개의 단어들을(예언자를 따르고 화평을 얻으라) 교실에 숨겨 놓았다고 말한다. 그들이 여러분의 지시 사항에 따른다면 그 단어들을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 어린이에게 “교실의 오른쪽 편으로 가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의자들 가운데, 왼쪽에서 세 번째 의자 밑을 보세요”와 같이 첫번째 단어를 찾을 수 있도록 방향을 알려 준다. 단어들을 모두 찾을 때까지 계속한다. 단어들을 비다이니 첩판에 붙여서 예언자를 따르고 화평을 얻으라라는 문장을 만든다.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그 단어들을 모두 찾을 수 있었느냐고 질문한다. 순종하여 예언자가 알려 주는 방향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화평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해 준다. 어린이들에게 예언자에게 순종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한다.(예를 들면, 십일조를 바친다. 부모님께 순종한다. 기도한다. 금식한다. 경전을 공부한다 등)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바라신다고 설명한다. 순종하고 예언자를 따르기를 배우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화평과 행복이라는 큰 축복을 가져온다.

3. 경전과 자전거 헬멧 또는 기타 안전 장치를 보여 준다. 어린이들에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이 둘은

모두, 올바르게 사용하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준다. “계명을 지키라”(어린이 노래책, 68~69쪽; 찬송가, 191장)의 첫 두 소절을 노래한다. 어린이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첫 두 소절을 부르도록 권유하고, “계명을 지키면 무엇이 있어요?”라고 질문한다.(안전과 평화) 이 노래의 세 번째 소절을 교사와 어린이들이 함께 노래하고 나서 어린이들에게 첫 소절부터 세 번째 소절까지 노래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죠?”라고 질문한다.(주 축복 주시리) 어린이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므로 모두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불러보겠다고 말한다. 여러분이 “예언자 말씀, 계명을 지키라”를 불러주고, 어린이들이 그 노래를 여러분에게 다시 불러 준다. 그들에게 이 부분까지 부르게 한다. “예언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죠?”라고 질문한다.(계명을 지키라) 마지막 소절을 어린이들에게 불러 주고 어린이들이 이 소절을 다시 부른다. 그런 다음, 노래 전체를 함께 부른다.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계명을 지키라”가 몇 번 나오고, “안전과 평화 있네”는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몇 번 약속하셨는지 알아보라고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증한다.

비로소 흥하는 시온의 땅

안양 스테이크 시흥 와드



1982년 시흥 지부 시절(앞줄 가운데 최동헌 형제,
앞줄 맨 오른쪽 이상태 형제, 뒷줄 오른쪽에서 넷째 최윤환 형제)

1. 초기 성도들의 개증기

1980년 4월 1일, 서울 서 선교부 산하 시흥 지부가 창설되었다. 초대 지부장으로 선교사 우베리 장로가 봉사했으며, 12명의 회원들이 독산 지부 건물에서 예배를 보았다.

3개월 뒤 제2대 지부장으로 최동헌 형제가 부름 받았는데, 원래 그는 목사인 친구들을 여러 명 알고 지낼 만큼 일반 교회에 친숙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는 다섯 자녀 모두가 서로 다른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보고 가족이 같은 교회에 다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외삼촌 이영직 형제의 손에 이끌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다니는 막내 아들에게 관심을 갖고 선교사들과 만나 복음 토론회를 했으며, 침례를 받았다. 최동헌 형제는 그 후 충실히 신앙 생활을 하여 서울 서 스테이크장으로도 봉사했고 1992년에 작고했다.

최동헌 형제의 장남 최윤환 형제는 동생 최경환 형제가 이상한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하여 별을 주기도 하고 선교사들과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인 동생의 모범으로 1973년에 침례를 받았다. 훗날 그는 시흥 와드의 제5대 감독이 되었으며 현재 안양 스테이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2. 지부에서 와드로

1981년 1월 1일 시흥 지부는 서울 서 스테이크로 편입되었다. 같은 해 5월에는 지부 건물을 갖게 되었으며 10월 25일 제1회 시흥 지부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때 참석 인원은 110명이었는데, 이는 실로 놀라운 기적이었다. 불과 1년만에 회원 수가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1981년 8월 15일에는 이상태 형제가 제3대 지부장으로 부름 받았다. 1년 뒤 제2회 지부 대회가 열려 회원과 구도자 204명이 참석했다. 시흥 지부는 이를 계기로 1982년 11월 21일에 와드로 승격했다.

시흥 와드의 제3대 지부장이면서 초대 감독이기도 한 이상태 형제는 고등학교 1학년 무렵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에 다녔으며 그곳에서 대학부 종교부장도 하고 성가대에도 가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의 목적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런 대로 교회 생활이 재미있기도 하고 언젠가 깨달을 날이 있으리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12년 동안 그 곳에 다녔다.

군에서 제대한 뒤 이상태 형제는 정말 옳은 교회가 어디인가를 고민했다. 그래서 여러 교파의 교회를 탐색했다. 그러고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인간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때 한 후배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를 소개했다. 선교사들과 만난 이상태 형제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이곳에 왜 있으며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들에게서 평생을 간직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1971년 이상태 형제는 침례를 받았으며 그 뒤 서울 서 스테이크장으로 봉사했다.

3. 건물 완공과 안양 스테이크의 조직

1983년 5월 15일, 시흥 와드 건물 기공식이 있었다. 초기 성



1990년 당시 감독이던 최윤환 형제와 청소년들

도인 최경환, 최윤환 형제와 김미정, 구본경, 주현식, 김정숙 자매 등은 이 시절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 건물 짓는 일을 도왔다고 회고한다. 회원들은 주로 벽돌과 시멘트를 날랐고 건물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으며, 건물이 차츰 완공되는 과정을 보며 서로 기쁨을 나누곤 했다. 건물은 1984년 6월 14일에 완공되었고, 그해 12월 16일에 헌납식을 했다.

1992년 5월 시흥 와드는 서울 서 스테이크에서 안양 스테이크로 소속이 바뀌었다. 안양 스테이크가 분리되면서 과천, 안양, 군포, 독산, 안산 와드가 함께 분리되었는데, 초대 안양 스테이크장으로 이영환 형제가, 제1보좌로 이정근 형제가, 제2보좌로 정동찬 형제가 봉사했다.

4. 청소년,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찾음

1990년 12월 제5대 감독으로 최윤환 형제가 부름 받았다. 1986년부터 90년대 초까지는 청남 청년들이 아주 많이 개종했는데, 당시 와드에 청소년이 30명 가까이 되었고 다섯 가정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청소년과 독신이였다. 그때 감독인 최윤환 형제와 부인 구본경 자매는 시흥 와드의 많은 청소년들이 아직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여럿 만들었다. 청소년들은 와드 뒷마당에서 탁구, 축구,

배구, 족구 대회를 했으며 운동이 끝난 뒤 바베큐 파티를 하며 어른들과 거리를 좁힐 수 있었다. 또 '터놓고 얘기합시다'라는 시간에는 평소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토론했다. 이런 모임을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복음을 연구하며 경전을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또 당시 신권 지도자들의 집은 늘 청소년들로 넘쳤으며 그 가정의 자매들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빴다. 이 때 청소년기를 거쳐 선교 사업을 다녀오고 지금까지 시흥 와드에 남아있는 형제 자매들은 와드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제6대 감독으로 한상선 형제가 1996년 9월부터 2000년 9월까지 봉사할 때는 40여 명의 독신들이 와드에서 활동 중이었는데, 그 중 서너 명만 빼고 거의 모두 다 선교 사업을 보냈다. 한때는 한 번에 10명 정도가 와드를 떠나 선교 사업 중인 때도 있었다. 선교 사업은 이들이 귀환 후 성전 결혼을 하는 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다.

80년대 초반부터 청소년들은 매년 겨울마다 재능 발표회 '화룻가'를 개최하고 있다. 지금은 학부형이 된 주현식 자매와 김정숙 자매, 미국에 있는 김승호 형제 등은 '화룻가'의 초창기 멤버들이다. 또 시흥 와드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로 축구단'인데, 예전에는 매주 토요일 아침 경기를 하였으나, 요즘은 한달에 두 번 정도 모임을 하고 정기적으로 다른 팀과 시합을 벌인다. 이 축구단 활동을 통해 많은 형제들이 개종했다. 한편 '하나로 중창단'은 또 다른 자랑거리이다. 형제 12명이,속한 '하나로 중창단'은 1992년에 열렸던 서울 서 지역 중창 경연 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했다.

5. 굳건한 토대를 마련함

1996년 이후 통계를 보면 와드 회원들의 연령별 분포가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연령 분포를 보면 어린이와 10대가 41%, 20대가 18%, 30대가 31%, 40대 이후가 10%이다. 그리고 성인 중에서 기혼자는 43%이고 독신은 18%인데, 80~90년 대의 청소년과 독신들이 선교 사업을 다녀와서 결혼을 했고, 이들이 가정을 이룬 것이 변화의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침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상이 가족 회원의 자녀라는 점에서 드러난다. 가족이 강화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하여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한편 시흥 와드에는 27명의 귀환 선교사가 있으며 현재 전임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은 2명이다. 또 엔드우먼트를 받은 활동 회원 수는 46명이고 이 중 77%가 한달에 한 번 이상 성전에서 의식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 대해 시흥 와드의 심상문 감독은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간증했다. 서울의 남쪽에 있는 시흥 와드는 문자 그대로 비로소 흥하기 시작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심히 창대한 곳! 시흥 와드 회원들은 겸손히 시운을 향하여 매진할 것이다.(이중호)



현재 시흥 와드 회원들

빛을 던져 주어라

데이비드 린 와델 선교부장(대전 선교부)



1999년 봄, 천안에서 봉사하던 앤드류스 장로와 브러프 장로는 교회 회원이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에서 특별한 구도자를 만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자매의 이름은 안미희였는데, 선교사들이 간증을 전하고 복음을 공부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선교사들

은 곧 안 자매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교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앤드류스 장로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페어 장로가 대신 왔습니다.

안미희 자매의 시어머니는 불교 신자였으며 가끔 안 자매의 가정 에 들르시곤 했습니다. 그녀는 토론을 하면서 자기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그 분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 토론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뒤 안 자매는 다시 영회 회화반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그 만두었던 복음 토론도 서서히 시작하여 완전히 끝냈습니다.

가을에 저희 부부는 천안에 들렀습니다. 페어 장로는 안 자매와 두 딸이 저희를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았습니다. 안 자매를 보았을 때 저희는 곧 특별한 영의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 자매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고, 저희는 성신의 속삭임에 따라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침례 받고자 하는 안 자매의 소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당시 페어 장로는 이미 천안을 떠난 뒤였지만 안 자매와 편지로 연락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페어 장로는 그녀에게 침례 받고 교회에 참석하기 위해 남편의 허락을 구해 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안 자매는 남편에게 반드시 침례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영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교회에 나가도 좋은지 묻자, 남편은 놀라게도 매우 사려 깊은 태도를 보이며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에 나가는 것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승낙과 배려에 고무되었습니다. 친절한 남편

이 그녀를 이해한 것입니다.

안미희 자매는 2000년 3월 18일에 침례 받았습니다. 특별하고 아름다운 영이 임했고 그녀의 눈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페어 장로가 천안에 돌아와 침례 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 페어 장로는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지의 사본을 선물했는데, 그 곳에는 안 자매와 토론을 하는 동안 있었던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안 자매를 복음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느낀 것과, 침례를 바라던 간절한 소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안 자매의 손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쩍 커버린 간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침례 받기 전에 그녀는 친한 친구인 전미정 자매의 가족에게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전 자매의 남편 장상하 형제, 아들 윤재와 원재도 토론에 참여했으며 안 자매가 침례 받고 나서 일주일 뒤 그들도 침례 받았습니다.

안 자매는 복음을 사랑했으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를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자 친구는 매우 흥분하여 그 교회는 아주 좋지 않은 교

회이고 다시는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간증은 확고하여 이러한 비판에 흔들리지 않았지만, 이 일이 있는 후에는 종교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안 자매는 은행에서 김숙경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그녀에게 앉기를 권하며 커피 두 잔을 가져왔습니다. 안 자매는 지혜의 말씀을 설명하며 맘 상하지 않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친구는 그녀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인 데서 오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친구는 흥미를 느꼈고 조금 더 알고 싶어했습니다. 곧 그 친구의 남편과 딸도 토론에 참여했으며 가족 모두가 침례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안 자매는 복음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 자매에게는 두 딸(서현, 세진)이 있습니다. 첫째는 침례 받았



안미희 자매와 그녀로 인해 개종한 친구 가족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유희용 형제, 김숙경 자매와 딸 가람,

뒷줄 왼쪽부터 이선기 형제, 안미희 자매,

그리고 장상하 형제와 전미정 자매 사이에 아들 윤재, 원재.

지만 둘째는 어려서 아직 침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로서 그녀는 밤마다 딸에게 경전을 읽어 주고, 함께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드립니다.

2001년 1월 19일, 안 자매는 그녀의 다른 친구를 선교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안미희 자매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본보기이며, “이 백성들에게 빛”(니파이삼서 15:12)이 되라는 구세주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안 자매가 그리스도의 빛을

지냈으며, 바로 여기서 기쁨을 느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의 내게로 데려온 단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그처럼 클진대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게 될 때면 너희 기쁨은 얼마나 그겠느냐”(교리와 성약 118:16)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딸과 그 남편을 알게 된 것은 커다란 축복이자 영광입니다. 한국의 훌륭한 성도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20년간의 기다림

고명숙 자매(대전 스테이크 둔산 외도)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친구가 자신의 오빠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간 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상호향사회'라는 청남 청년 활동 모임에서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

서 1:39)라는 성구를 다 함께 외웠습니다. 저는 그 모임이 마음에 들어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참석했고 선교사들과 토론을 한 뒤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 오빠와 동생을 교회로 인도했고, 동생은 지금까지 충실하게 복음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의 부족한 신앙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비회원인 저의 남편을 통해서였습니다.

회원은 아니었지만 교회의 가르침과 비슷한 생활을 하기에 지도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 20년이 흐르고 네 명의 자녀를 낳을 때까지 저는 아이들만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편이 개종할 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아도, 의지가 강한 저의 남편의 강철보다 단단한 마음은 뚫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변화되기를 수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에게 훌륭한 간증들을 전했지만, 번번이 저의 행동은 큰 벽에 부딪혔으며 그럴 때마다 주저 않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이 아름다운 복음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러던 어느 날 감독님께서 “진실로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도 피할 자가 없나니, 보지 아니할 눈도 없으며 듣지 아

니할 귀도 없으며 꿰뚫리지 아니할 마음도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2)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 힘으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제 자신이 변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제 뒤에 충실하려고 애썼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모두 다 아빠를 위해 기도해 보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돌아가신 분들의 힘이라도 빌려 보기로 마음 먹고 가족 역사 사업을 시작했고, 조상들도 우리를 도우라라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남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1999년 1월부터 교회의 안식일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제 갖 돌이 지난 막내 아들의 손을 잡고 교회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남편의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선교사를 초대하여 토론을 하면서도 침례 받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계시는 시어머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저희 집으로 오셨는데, 제가 기꺼이 정성을 다해 시어머님을 모시고 자녀들도 한 마디 불평 없이 고통을 분담하자, 남편은 여기에 감동을 받아 침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1999년 8월 15일, 그 날은 저의 남편이 침례를 받았던 날입니다. 언젠가 입을지 몰라 미리 준비해 놓은 침례복을 꺼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안식일에 자녀들과 교회에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남편,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큰 딸 현주와 늦게 낳았지만 잘 자라 주고 있는 막내아들 세하, 사랑하는 둘째 딸 현아와 의젓한 큰 아들 영하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도록 그분의 아들을 저희에게 보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아멘.



신앙의 농구 선수, 요나 에노사 형제

지난 몇 개월간 강서 스테이크 역곡 와드에는 키 207센티미터의 짧은 외국인 농구 선수(신세기 빅스 소속) 요나 에노사 형제가 5명의 가족과 함께 찬찬식에 참석했다. 한국 말을 못하는 그들 가족은 맨 앞자리에 앉아 미국인 선교사들의 통역으로 영적인 말씀을 들었다.

서사모아 출신의 에노사 형제는 그 곳에서 선교 사업을 마쳤으며 한국에 오기 전 폴란드와 뉴질랜드에서 외국인 선수로 활약한 바 있다. 에노사 가족은 6명으로 요나 에노사 형제(30세), 부인 씨나 자매(34세), 큰 아들 잭(10세), 둘째 아들 조단(6세), 큰 딸 킨드라(3세), 셋째 아들 코비(1세)가 있다. 강서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2월 25일 역곡 와드와 부천 와드, 소래 지부에서 온 9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노변의 모임을 열었다. 에노사 가족은 한국에 온 외국인 선수로는 유일하게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감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유타 주 오렘 시로 떠났으며 한국 프로 농구 팀과 재계약할지는 미정이지만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고 했다. 다음은 에노사 가족과 노변의 모임 며칠 전에 한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이상래)

십대의 생활은 어떠했으며 신앙 생활의 장애는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저는 서사모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학교 생활과 교회 활동, 집안 일을 하는 데 보냈습니다. 만 19세에 선교 사업을 떠났고 날마다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성신을 동반하는 삶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농구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열두 살에 교회 농구 리그에 참가하면서입니다. 그 후 계속 농구를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키가 190.5센티미터였으나 선교 사업을 마칠 즈음에는 207센티미터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난 뒤 BYU 하와이에서 4년간 장학금을 받고 선수로 뛰었습니다. 1999년에는 뉴질랜드에서 외국인 선수로 활약했는데, 우리 팀이 승리했고 저는 그 해 MVP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폴란드에서 뛰었는데, 가족과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가족과 함께 오도록 허락해 주는 팀과 계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신세기 빅스에서 제가 경기하는 것을 보기도 전에 저희 가족이 한국에 오도록 승인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한국에 오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족의 모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가족은 가족 기도 전에 가족 임무 선언서를 다 같이 암송합

니다. 이는 우리 가족 모두가 영원한 가족이 되며 발전하는 데 필요한 자질입니다. 이를 통해 매일 영원한 가족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마음속에 소망을 품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가족의 임무 선언서인데 제 이름의 이니셜(E.N.O.S.A)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가족 임무 선언서

우리 에노사 가족은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란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에게 다음과 같이 행할 것을 약속한다.

Exemplify: 행동, 태도, 외모에서 의의 모범을 보인다.

Nurture: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간증을 키운다.

Obey: 주님의 계명에 순종한다.

Serve: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주님을 섬긴다.

Attend: 간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회 모임에 참석한다.

이러한 것들을 행할 때,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다.

가족 모토: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잊으라!"

은퇴 후의 계획과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우선 경기 후에 하와이 BYU에서 학위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코치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교회의 표준에 따라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권고와 가르침에 순종하고 지혜의 말씀과 순결의 법을 지키며, 매일의 경전 공부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큰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에노사 형제의 가족과 우정을 나누는 역곡 와드 회원들



헌혈로 실천하는 이웃 사랑

3월 한 달간 전국에서 열린 말일성도 헌혈 행사

한국에서 헌혈 행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1997년 여름, 전세계적으로 개척자 150주년 행사가 한창일 때였다.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자는 뜻에서 매년 6월 6일 전국의 말일 성도들이 각 지역별로 일제히 모여 헌혈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3월로 날짜를 옮겨 각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말일 성도들이 소리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의 현장으로 가본다.

꽃샘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3월 10일, 서울 북 스테이크의 성도들 50여 명은 스테이크 센터에 모여 헌혈을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헌혈 행사에서 약 30명이 채혈을 할 수 있었다. 동대문 스테이크도 같은 날 용두 와드에 모여 32명의 성도들이 헌혈했다. 이날 같은 서울 선교부장 내외도 헌혈에 참여했으며, 면목 와드의 이진화 자매는 헌혈 뒤 어지러움으로 누워있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에 미소를 띠었다.

한편 3월 17일은 전국적으로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모임 준비로 바쁜 가운데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이들의 신앙을 느낄 수 있었다. 순천 지방부와 안양 스테이크에서 각각 20명, 16명이 헌혈을 했고 안양 스테이크는 이날 모은 헌혈증을 대수술을 앞둔 산본 와드 임성미 자매에게 전달했다. 한편 부산 서 지방부도 같은 날 헌혈 행사를 열었으며, 청주 스테이크는 19명이 참여했다. 24일 열린 서울 스테이크 헌혈 행사에서는 11명이 실채혈을 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수혈량이 많지 않아 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하고 싶어도 두려움 때문에 이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청주 스테이크의 민순희 자매도 이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녀는 30세가 넘도록 주사 바늘이 몸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 헌혈을 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교회에서 헌혈 행사가 열리고 있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봉사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준 적은 몇 번 있었지만, 그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봉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헌혈을 한 뒤 헌혈증을 교회에 기증하면서 느낀 뿌듯함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한편 청주 스테이크의 박충서 자매는 지금까지 매년 헌혈을 하려 해도 혈액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박 자매는 올해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헌혈을 하러 갔을 때 혈액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박 자매는 올해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헌혈을 하러 갔을 때 혈액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박 자매는 올해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헌혈을 하러 갔을 때 혈액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마음에 헌혈차에 올랐다. 그런데 뜻밖에도 검사 결과가 좋아 채혈할 수 있었다. 그녀는 '헌혈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축복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고 간증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은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 주신다."(*앤서인*, 1974년 12월호, 5쪽)라고 말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청주 스테이크 한별 지부 최정 자매의 조카 최재원 형제는 백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난 3월 18일 한국 공보 위원회와 부산, 강릉, 청주 지역의 성도들이 헌혈 증 130여 장을 기증했고 서울 북 스테이크에서도 헌혈증을 모아 전달했다. 성도들은 봉사를 통해 주님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었다.

"헌혈대에 누웠을 때,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 겿세마네 동산에서 온몸의 땀구멍에서 피를 쏟으시며 기도하신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희생을 생각하면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 정도나마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헌혈뿐 아니라 다른 봉사도 기꺼이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청주 스테이크 석교 지부 한봉환 형제)

올해로 한국의 헌혈 행사도 5년째를 맞았다. 그리고 성도들이 헌혈을 생각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 성도들은 헌혈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봉사의 축복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전반기 스테이크·지방부 대회

강릉 지방부 대회

지난 2월 17일(토)~18일(일) 북 아시아 지역 회장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의 감리 아래 강릉 지방부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강릉 지방부가 원주 지방부와 통합하여 처음 갖는 뜻 깊은 모임으로, 2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으며 심진건 형제와 허승환 형제가 장로 신권에 성임되었다.(황선아)

부산 스테이크 대회

지난 3월 18일(일) 수정 와드에서 북아시아 지역 회장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를 모시고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브라운 장로는 최근에 개종한 회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으며 구원식 형제 외 1명이 대제사로, 정청곤 형제 외 5명이 장로로 성임되었다.(이희숙)

순천 지방부 대회

2001년 전반기 순천 지방부 대회가 3월 17(토)~18일(일) 순천 지방부 센터에서 와텔 대전 선교부장의 감리 하에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여수, 여천, 광양, 순천 지역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종호, 김종열, 박대천 형제가 장로로 성임되었다.(장봉률)

청주 스테이크 대회

지난 3월 3일(토)~4일(일)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주제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이 레이 베이트먼 장로의 감리 아래 청주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김종열 장로도 이번 스테이크 대회에 함께했으며, 유영호 형제가 대제사로, 김상현 형제가 장로로 지지 받았다.(박미영)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돕기 위하여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

3월은 봄이 시작되는 동시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1842년 3월 17일 나부에서 상호부조회를 조직한 뜻깊은 달이다. 지난 3월 한 달간 각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는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를 열고 자매들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다.

먼저 지난 3월 10일에는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의 창립 기념 행사가 있었으며 17일에는 강릉 지방부, 대전 스테이크, 부산 서 지방부, 서울 스테이크와 동 스테이크, 강서 스테이크, 안양 스테이크, 전주 스테이크가 각각 창립 기념 행사를 가졌다. 또한 부산 스테이크와 청주 스테이크는 24일 모임을 가졌으며, 이러한 행사는 대부분 각 와드에서 준비한 순서를 발표하고 자매들의 간증을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창립 기념 행사에서는 연극과 콩트가 빠지지 않고 무대에 올랐다. 대전 스테이크 창립 기념 행사에서 유성 와드 자매들은 연극 계란 한 개로 시작된 7년 싸움을 공연했는데, 2개월의 연습 기간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었다고 간증했다.

또한 발표 순서에서는 연극, 합창, 악기 연주 외에도 스포츠 댄스, 발레, 택견, 시 낭송, 뮤지컬, 가족 노래 자랑, 요리 경연 대회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순서들이 함께 마련되었다.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 자매들은 안양 스테이크 창립 기념 행사에서 차밍 댄스를 발표했는데, 이를 준비하는 데 약 45일이 걸렸다고 한다.

한편 지난 3월 17일에 있었던 순천 지방부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에서, 이해진 자매는 '평소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상호부조회 모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또 같은 스테이크 윤미래 자매는 저활동 기간에 자신에게 사랑을 보여 준 교회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결혼 후에 남편이 저활동이 되어 무척 힘들었습니다. 저까지 함께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았을 때 아낌없는 사랑과 좋은 말씀으로 격려와 위로를 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회 회원들의 모범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남편의 마음을 변화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자매들이 "가난한 자를 도울 뿐 아니라 영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에 참여한 대전 스테이크 자매들.

혼을 구하는 일도 해야 한다."(교회 정사, 5:25)고 가르쳤다. 상호부조회의 창립 목적은 자선 봉사 이상의 것이며, 이 정신은 오늘날 한국의 각 스테이크와 지방부에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 스테이크

청녀 지도자 지침서 대회

지난 2월 27일(토)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청녀 지도자 지침서 대회를 열었다. 스테이크장단 제2보좌인 김광운 부장의 감리 하에 퀴즈 활동을 하며 청녀 조직의 목적과 프로그램, 청녀 지도자의 역할을 상기했다. 김광운 부장은 "기본적인 뼈대를 알아야 반 회장단, 반원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지침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홍세라)

서울 스테이크

친구 초대 밤



지난 3월 24일(토) 신당 와드에서 오히근 스테이크장의 감리 아래 서울 스테이크 친구 초대 밤이 열렸다. 청소년들이 한달간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한 춤과 노래, 콩트, 플랫 연주, 연극을 발표했으며, 40여 명의 회원과 구도자가 참석했다.(박세리)